



韓 성장률전망 1.9%로 상향 '고환율'에 금리인하는 저속

KDI, 반도체 등 수출 반등 하지만
환율변동에 통화정책 균형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했지만 같은 전망표의 원·달러 환율 가정은 1456원으로 더 높아졌다. 수출 반등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도 달러 수급과 환율 변동성이 남는 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1.8%)에서 0.1%포인트(p) 올린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을 상향 요인으로 들었다.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본 대목은 '환율 전제'다. KDI는 11월 전망 당시 원·달러 환율을 1323원 수준으로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456원 수준(1월 평균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상향했다. 성장 숫자가 좋아져도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고착되면 수입물가·기대인플레이션 경로와 금융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정책 판단의 앞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수출은 개선, 내수는 더딘' 흐름을 보이면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환율·금융안정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더 어렵게 잡아야 한다. 한은 입장에서는 '인하를 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구조다. 환율 전제 상향

은 수입물가 둔화 속도와 기업 원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성장 개선의 체감이 얼마나 확산될지도 변수다.

실물 지표에서는 수출이 반등 신호를 보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으로 2월 1~10일 수출은 2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7.6% 급증해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월초 잠정치 특성상 조업일수와 기저효과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은 증가율 자체보다 '흐름이 이어지느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만큼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도 동시에 가격에 반영된다. 기업의 해외투자, 배당·이자 지급, 거주자의 해외자산 매입 등 달러 수요가 겹치면 수출 개선이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환율 가정이 높아졌다는 것은, 같은 성장 경로를 전제하더라도 달러 수급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전망치에 녹아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외환 완충 여력의 흐름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감소 요인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됐다. 외환보유액은 고환율·고변동성 국면에서 완충 여력이 어디까지인지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김주형 기자 gh471@

구조적 상승 vs 과열 '의견 분분' 천스닥 시대, 동학개미 투자 고민

NH투자증권, 올해 목표지수 1300
시장 과열에 1500 달성 전망도
현대차증권 "상승과정 PER 확대
지수차원 펀더멘탈 개선 제한적"

직장인 윤모(42·서울 서초동)씨는 지난달 9일 에코프로 주식을 3000만원 어치 샀다. 올해 초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연 그는 에코프로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두 종목만 꾸준히 추가 매수해 총 4800만원을 투자했다. 윤씨는 "정부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코스닥 3000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했고, 기획예산처는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벤처·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 운용평가지침을 변경했다.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초체력 보다는 정부의 정책 이슈와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른바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에 의해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밀도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21.67%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분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달에는 24.2% 상승하면서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5위권에 해당하는 랠리를 보였다.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시대를 연 일등 공신은 코스닥150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150 관련 ETF에 자금



1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상승한 5425.39에 출발했다. /뉴시스

이 몰리고 있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상품은 'KODEX 코스닥150' (4조8992억원)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조9596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두 상품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로 KODEX 코스닥150을 2조9178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7699억원씩 순매수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주요 요인으로 ETF 수급 효과가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580조원에서 637조원까지 약 57조원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이 기초체력 보다 정책 이벤트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파마리서치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 이모(35)씨는 결국 지난 6일 보유한 주식의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 지난해 6월 44만원대에 올라탄 이씨는 "이제는 마음고생을 안 하고 싶어서 전부 팔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침없이 올라가는 다른 코스닥 종목 주가를 보고 "단타로 들어가야 하나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달리는 말'로 평가한다.

김종영·나정환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 코스닥 목표 지수를 1300포인트로 상향 제시했다. 특히 시장 과열 시나리오에서는 15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유입 기반 조성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스닥 벤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 혜택 신설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질어진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코스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2.83%로, 보름 연속 2%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이익 개선보다 지수 상승 과정에서 PER이 함께 확대되는 흐름으로, 지수 차원의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은 실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대감,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도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이 차익 실현 유인을 키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의정부viewtiful

시민이 직접 뽑은
**의정부
경(景)**

망월사

기암절벽 속 숨은 고찰, 망월사

미술도서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화강암 능선이 펼쳐진 경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 구석구석을 잇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예술의전당

감동과 열정! 의정부 문화예술의 중심,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제일시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회룡사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을 만나다, 회룡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